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7, No. 105, pp. 189–225  
<https://doi.org/10.29212/mh.2017..105.18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8월의 폭풍”에서 “사막의 폭풍”으로: 냉전 시기 미육군의 소련군 작전술 이론의 연구와 수용 과정

류한수\*

1. 머리말
2. 미군의 작전술 개념 부재: 1982년까지의 상황
3. 베트남 전쟁과 미군의 변화: 잔존하는 편견
4. 편견의 학술적 극복과 미군의 작전술 수용
5. 맺음말

## 1. 머 리 말

지난 20세기의 후반기는 미합중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치하는 냉전의 시대였다. 그 긴박한 대립 상황

\*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이 논문의 완성에 큰 도움을 준 유승현 씨께 고마움을 표합니다.)

속에서 두 초열강의 군대는 상대를 제압할 능력을 갖추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냉전기에 미국군은 소련의 붉은 군대를 자본주의 진영을 위협하는 강력한 적으로 인식하면서 적대감을 키웠다. 그 적대감은 때로 경멸감으로 이어져서, 미국 군부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동맹군이었던 소련군을 증오하면서 폄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인에게 인종주의적 편견을 품은 19세기 독일 장교단의 후예인 독일국방군(Wehrmacht) 장교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패망한 뒤에 냉전의 동서 진영 대립을 틈타 미국의 군 기관에 기용되면서 특히 미육군청 역사과에서 제2차 세계대전사 편찬에 참여하면서 소련군에 품은 편견이 미국 군부에서 재생산되고 확대강화되었다.<sup>1)</sup>

그러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려는 편견은, 상호 이해에도 그렇지만, 상호 대결할 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상황 아래서 미국 사회와 군부에는 소련군을 알아보고 업신여기는 정서가 팽배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는 소련군이라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미국군이 근거 없는 편견을 버리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파악해서 실상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도 존재했다. 냉전 시대에, 비록 소수였을지라도, 소련군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깨달은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군사학의 영역에서 소련군의 다양한 양상을 엄정하게 연구해서 미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했다. 그러한 사례들 가운데 하나로 미국인 군사 전문가의 노력으로 미국군이 편견을 애써 버리고 소련군이 전략과 전술 사이의 중간 개념으로 정의하고 개발한 작전술 개념을 군사 교리와 군사 교범에 정식으로 받아들인 일을 손꼽을 수 있다.

1) 류한수·유승현, 「“진흙 발의 거상”인가? “붉은” 스팀롤러인가?: 러시아/소련 군대에 관한 서방 세계의 편견과 실상, 『중소연구』 제41권 1호 (2017년 5월), 293-322쪽; Ronald Smelser and Edward Davies Jr., *The Myth of the Eastern Front: The Nazi-Soviet War in American Popular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Chapter 2 and 3을 참고할 것.

미군이 작전술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탐구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주제로 삼은 선행 연구는 국내외 학계에 적잖이 존재한다.<sup>2)</sup> 기존의 연구에서는 작전술 개념을 최초로 고안하고 도입한 주체가 소련군이라는 사실이 부정되지 않으면서도, 대체로 미군의 작전술 개념 도입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 전문가 에드워드 루트왁(Edward Luttwak)이나 미군의 윌리엄 데퓨(William E. Depuy) 장군과 돈 스타리(Donn A. Starry) 장군이 한 역할이 부각되고 강조된다.<sup>3)</sup> 루트왁은 “작전적 수준”(operational level)에 관해 최초로 말한 군사 자문관이었고, 데퓨 장군과 스타리 장군은 각각 미육군 훈련교리사령부(U.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의 제1대, 제2대 사령관이었다.

그러나 미군의 작전술 개념 도입이라는 주제에 관해 기존의 연구가 짜 맞춘 퍼즐은 큼직한 그림 조각이 여럿 빠진 미완성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소련군의 작전술을 연구한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영향력이 언급되지 않거나 극도로 축소되어 언급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완성되지 못한 그 퍼즐이 완전해지려면, 명문화된 작전술 개념이 사실상 공산권 국가에만 존재했다는 사실이 더 강조되고 냉전기에 소련군

2) Richard M. Swain, “Filling the Void: The Operational Art and the U.S. Army,” in B. J. C. McMercher and Michael A. Hennessy (eds.), *The Operational Art: Developments in the Theories of War* (London: Praeger, 1996); Kevin C. M. Benson, “Educating the Army’s Jedi: The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and the Introduction of Operational Art into U.S. Army Doctrine 1983–1994,” (Ph.D. Diss., University of Kansas, 2010); 노양규, 「미국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년).

3) 리처드 스웨인(Richard Swain)이 논문에서 소련 군사이론에 관해 언급한 분량은 딱 한 줄에 지나지 않았다. Swain, “Filling the Void,” pp. 162. 케빈 벤슨(Kevin Benson)은 고등군사연구원(SAMS) 강사 제임스 슈나이더의 교육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슈나이더가 소련군의 작전술을 연구했다고는 쓰지 않았다. 로렌스 프리드먼(Lawrence Freedman)은 저서에서 1980년대 작전술의 등장을 설명하면서도 루트왁의 역할만 언급한다. 로렌스 프리드먼 (이경식 옮김), 『전략의 역사』 제1권 (비즈니스북스, 2014), 424–429쪽. 노양규는 미군의 작전술 도입에 소련군 연구자들의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는 따로 서술하지 않았다. 노양규, 「미국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6–10, 32–37쪽.

과 바르샤바 조약군의 재래식 전력을 상대할 방법을 모색하던 미군이 서방의 여러 군사전문가들의 학술적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그 작전술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부각되어야 한다.<sup>4)</sup>

이 글의 목적은 냉전기에 소련군과 소련의 군사 이론을 연구한 서방의 여러 군사 전문가,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데이비드 글랜츠(David M. Glantz), 제이콥 키프(Jacob W. Kipp), 브루스 메닝(Bruce W. Menning), 그레이엄 터비빌(Graham H. Turbiville)을 비롯한 옛 소련군사연구소(Soviet Army Studies Office) 소속 연구자의 학술 활동이 미군의 작전술 개념 도입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를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미군이 적군인 소련군의 군사 이론을 수용하고 체화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규명하는 이러한 시도는 냉전기에 전반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이, 특정하게는 미군과 소련군이 극한적 대결을 추구하면서도, 어쩌면 대결을 추구했기에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게 되는 복잡한 대립의 한 양상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에 이바지할 것이다.

## 2. 미군의 작전술 개념 부재: 1982년까지의 상황

군사술(용병술)의 한 체계인 작전술은 전략과 전술의 중간 영역이다. 작전술은 작전적 수준의 지휘관과 참모가 군사전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역이나 주요 작전을 구상하고 군사력을 조직하여 운용하기 위해 지식, 숙련된 능력, 경험을 창의적으로 적용하는 기술이다.<sup>5)</sup> 전략

4) 미군과 영국군이 작전술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에 소련 군사이론이 미친 영향을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한 예외적인 연구자로는 이스라엘의 군사 이론가 시몬 나베흐(Shimon Naveh)가 있다. 나베흐는 “미군의 개혁학파가 소련의 군사이론을 받아들이는 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들이 영국과 미국의 소련군 연구자들이었다고 주장했다. Shimon Naveh, *In Pursuit of Military Excellence: The Evolution of Operational Theory* (London: Frank Cass, 1997), pp. 273-274.

과 전술의 중간 영역에 관한 탐구는 산업화 시대의 대량군대(mass army)를 동원한 대규모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군대가 거대해져 야전군과 집단군처럼 지휘관이 전장에서 전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큰 편제가 나타났고 러시아-일본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에서 야전군과 집단군의 군사 작전은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작고 전술이라고 하기에는 큰 중간의 영역이 되었다.<sup>6)</sup>

그 중간의 영역을 이론화한 이는 소련의 군사이론가 알렉산드르 스베친(Aleksandr A. Svechin) 장군이었다. 스베친은 세계 최초로 전략과 전술 사이의 중간 개념, 야전군과 집단군의 영역을 군사작전 수행의 기술인 “작전술”로 정의했다.<sup>7)</sup> 그가 1924년의 소련군 참모대학에서 한 강의에서 작전술의 정의를 제시하고 1926년에 저서 『전략』(Strategiia)에서 확대한 뒤에 작전술 개념은 소련군의 공식적인 개념이 되었고 보편화되었다.<sup>8)</sup> 그러나 미군에서는 작전술을 비롯해서 전략과 전술 사이의 중간 개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sup>9)</sup> 소련군의 개념으로 전략과 전

5) 합동교범 3-0, 『합동작전(최종 인쇄본)』 2010.9판, 121쪽. 『합동작전(미 합동교범 3-0 번역본, 2011.8.11.판)』, 257쪽에는 작전술이 “지휘관 및 참모들의 인식적 접근으로 - 그들의 기술, 지식 및 경험, 창의력 및 판단의 도움을 받아 - 전략, 전역 및 작전을 구상하고, 최종상태, 방법 및 수단들을 통합함으로써 군사력을 평성 및 운용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더 자세한 작전술 해설은 앞의 글, 27-29쪽을 볼 것.

6) Bruce Menning, “The Operational Art’s Origin,” in Michael Krause and R. Cody Phillips (eds.),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2005), pp. 4-6.

7) Aleksandr A. Svechin, *Strategy* (Minneapolis: Westview Press, 1992), pp. 68-69.

8) Richard W. Harrison, *The Russian Way of War: Operational Art, 1904-1940*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 pp. 140-141. 스베친에 관해서는 A. A. 코코신 (한설 옮김), 『군과 정치: 러시아 군사정치·군사전략 사상사(1918~1991년)』 (육군군사연구소, 2016), 34-60, 101-119, 218-224쪽; 장문중, 「스베친의 소모전략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10)을 참고할 것.

9) 같은 시기에 미군의 어떤 교범도 작전술뿐만 아니라 “작전”이라는 용어를 전략 및 전술과 구분되는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다. Herold Nelson, “The Origin of Operational Art,” in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pp. 333-347을 참고할 것. 영국의 경우에는 군사이론가 바실 리델 하트(Basil H. Liddel Hart)가 군사술을 대전략(Grand Strategy), 군사전략, 전술로 삼분화했다. 바실 리델 하트 (주

술의 중간 개념으로 작전술이 있음을 맨 처음으로 미국에 알린 연구는 1961년에 미국의 군사 간행물 『육군』(Army)에 실린 월터 제이콥스(Walter Jacobs)의 논문이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이콥스는 소련군의 작전술 개념을 다음과 같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한 혁신[작전술]의 목적은 불명확하다. (.....) 서방의 군사학에서 이론적 개념으로서의 작전술은 완전히 부인된다. (.....) 서방은 단순히 이 개념이 서방 군사술의 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서방의 병기고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sup>10)</sup>

미국에서는 제이콥스가 소련의 작전술 개념을 소개한 뒤에도 오랫동안 작전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11)</sup>

은식 옮김, 『전략론』(책세상, 1999), 455~457쪽. 그러나 리델 하트의 분류는 영국군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10) J. Walter Jacobs, "The Art of Operations," *Army*, no. 11 (November 1961), p. 64; Justin Kelly and Mike Brennan, *Alien: How Operational Art Devoured Strategy* (Carlisle,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09), p. 1. 소련군의 마리엠프스키 대령은 제이콥스의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과연 그럴까?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몇몇 외국 군대는 현대 작전의 실상으로 관심을 돌렸다. (.....) 서유럽 국가들은 전쟁 수행을 전략으로, 작전의 준비와 수행은 낮은 전략(영국)이나 대전술(프랑스)로, 전투를 전술로 평가했다. 그리하여 몇몇 서유럽 군대는 작전의 수행을 특별한 원칙의 주제로 연구했다." I. Mariyevsky, "Foundation and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Operational Art (1918-1938)," in Herold Orenstein (ed.), *The Evolution of Soviet Operational Art, 1927-1991: The Documentary Basis* vol. 1: *Operational Art, 1927-1964* (London: Frank Cass, 1995), p. 303. 즉, 마리엠프스키는 작전술이 소련군만의 특수한 개념이 아니며 다른 나라의 군대에서도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한 개념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간주한다. 실제로 미군도 19세기 말과 1930년대에 이르러 전략과 전술의 중간 영역을 파악하려는 연구와 연구 결과를 반영한 대규모 기동훈련이 존재했다. 그 흐름에 관해서는 Michael Matheny, *Carrying the War to the Enemy: American Operational Art to 1945*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12), pp.45-91을 참고할 것.

11) 소련군과 독소전쟁에 관한 연구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존 에릭슨(John Erickson)도 소련의 군사 이론을 연구하며 스페친이 작전술 개념을 주창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1962년에 책을 저술할 때에는 그 점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에릭슨은 스페친의 작전술 개념을 "전술적 과업의 핵심"으로 파악했다. John Erickson,

미군이 작전술 개념에 관심을 느끼지 않은 까닭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리고 그 직후인 냉전 초기에 미국으로서는 작전술이 필요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준비할 이유가 없었다. 둘째, 19세기 이래로 내려온 군사술의 전략/전술 프레임이 더 편했으므로 미군에게는 그 프레임을 더 복잡하게 해석할 의향이 없었다.<sup>12)</sup> 1917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어 미국은 1918년에 이르러 1개 야전군(제1군)을 편성해서 작전술이 형성되는 밑바탕인 대량군대(mass army)를 유럽의 대규모 전장에 투입했다.<sup>13)</sup> 그러나 미 제1군의 작전 수행 경험은 1918년 8월에서 11월까지 비교적 단기간에 그쳤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미국은 평시에는 대규모 상비군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대대적 감축을 단행했다. 따라서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뒤에야 비로소 작전술 수행의 기본 편제인 야전군 이상의 단위부대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어 뒤에 미육군은, 독일국방군이나 소련의 붉은 군대와 달리, 북아프리카의 튀니지에 상륙하는 1943년 1월부터 프랑스의 노르망디(Normandie)에 상륙하는 1944년 6월까지 종심과 정면 측면에서 야전군 수준의 단위부대 전체가 기동할 수 있는 전장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적이 없다.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태평양 전선에서도 미육군이 벌인 대부분의 전투는 1개 사단 수준의 병력이 투

---

*The Soviet High Command: A Military-Political History, 1917-1941* (London: Frank Cass, 2001), pp. 313, 717.

12) Bruce W. Menning, “The Operational Art’s Origin,” in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p. 3.

13) 제1차 세계대전에서 1918년 5월에 미국 원정군이 첫 전투를 치를 때 프랑스에 있던 미군의 병력은 66만 명이었다. 그 해 8월에 미 제1군이 창설될 때 그 수는 147만 명이었고, 11월 종전 시에는 200만 명을 넘어섰다. 김재박,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 원정군(AEF)의 군사교리 연구: 1사단의 참전 경험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01년), 16쪽. 더 자세한 수치는 American Battle Monuments Commission, United States Marine Corps, *American Armies and Battlefields in Europe: A History, Guide, and Reference Book* (Washington, DC: U.S. Marine Corps, 1989), p. 502에 있다.

입될 수 있는 도서 지역에서 벌어졌다. 이런 까닭에 미육군은 두 해 가까이 작전술적 기동이 아닌 전술적 전투만 계속 수행한 셈이며, 1944년 6월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에야 비로소 미군의 야전군급 단위부대가 기동할 수 있는 전장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작전술 개념이 없었고 작전술적 수준의 경험을 쌓지 못했던 미군은 유럽 본토 서부전선에서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면서 적잖은 미숙성을 보여주었다.<sup>14)</sup> 이 미숙성은 한 해 뒤에 연합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덕택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냉전이 시작되자 미군은 동맹군이 아니라 가상 적군이 된 소련군을 일어날지 모를 미래의 전쟁에서 상대할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군과 실제로 전투를 벌였던 독일국방군의 경험을 활용했다. 미 육군청의 역사과가 주도해서 제2차 세계대전 유럽 동부전선의 전쟁사를 편찬하고 서술하는 작업에 나치 독일의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프란츠 할더(Franz Halder) 상급대장을 비롯한 독일국방군 장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전직 독일군 장교들은 동부전선에서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벌며 적이 전진해서 측방이 취약해졌을 때 노출된 약점을 노리고 역습을 가하는 기동방어(mobile defence)가 소련군을 상대할 때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 군사교범에 적잖이 반영되었다.<sup>15)</sup>

14)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군과 영국군은 주로 화력과 공중우세에 의존하고 원활한 군수 보급에 집착하고 측방 노출을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였고 작전술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서방 연합군은 조지 패튼(George Patton) 장군이 지휘하는 미 제3군을 제외하면 전술적으로 얻은 전과를 작전술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다. Charles Dick, *From Victory to Stalemate: The Western Front, 1944*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6)을 참고할 것.

15) Robert Hutchinson, "The Weight of History: Wehrmacht Officers, the U.S. Army Historical Division, and U.S. Military Doctrine, 1945-1956,"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78, no. 4 (October 2014), pp. 1321-48; Kevin Sutor, "To Stem the Red Tide: The German Report Series and Its Effect on American Defense Doctrine, 1948-1954,"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57, no. 4 (October-December 1993), pp. 653-688. 이 과정에서 독일군 장



그러나 냉전이 격화되고 미국이 핵무기 전력에서 앞서나가면서 제2차 세계대전 식의 재래식 전력의 역할과 위상에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행정부의 대량보복 전략(massive retaliation strategy)과 존 케네디(John F. Kennedy) 행정부의 유연대응 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으로 대표되는 핵전략이 미군 전략가들의 사고를 지배하면서 재래식 전력의 역할을 최소화해서 소규모 국지전이나 저강도 분쟁, 또는 대반란전(對反亂戰, counterinsurgency) 투입 등에 국한해야 한다는 전망이 우세해졌다.<sup>16)</sup> 또한 기동전보다는 화력 중심의 소모전을 선호하는 미군의 전략 문화에는 변화가 없었다.<sup>17)</sup> 이런 탓에 대규모 재래식 전쟁의 소산이자 기동전의 산물인 작전술 개념이 미국에서 각광을 받으며 등장하고 수용될 분위기는 조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 정세가 바뀌면서 전환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 3. 베트남 전쟁과 미군의 변화: 잔존하는 편견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면서 미육군은 워낙 크나큰 충격을 입어서 그 때까지 견지해오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전술적 수준의 전투에서 베트남 군대에게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도 미육군은 전

---

교들은 자기들이 나치 정권과 무관한 순수한 군인이며 “아시아적 야만”인 볼셰비즘(Bolshevism)에 맞서 유럽 그리스도교 세계를 지켰다는 “결백한 독일국방군” 신화를 만들었다. 류한수·유승현, 「“진흙 발의 거상”인가? “붉은” 스티뮬러인가?」, 295-302쪽을 참고할 것.

16) Robert Doughty, *The Evolution of U.S. Army Tactical Doctrine, 1946-1976* (Fort Leavenworth, Kansas: U.S.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79), pp. 12-18.

17) Dima Adamsky, *American Strategic Culture and the U.S.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Oslo: Norwegian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2008), pp. 33-37.

투의 전술적 승리를 종합적인 전략적 승리로 확대하지 못했으며, 마침내 치욕을 안은 채로 베트남에서 물러나야 했다.<sup>18)</sup> 또한 베트남전 패배의 여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1980년대 초에는 급증한 소련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대비 수요가 급증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핵무기의 위력을 강조하며 지상군 병력을 크게 감축했던 소련군은 1970년을 기점으로 삼아 다시 재래식 기계화 전력을 사용하는 작전술적 수준의 대규모 기동전의 역할을 재고하고 기갑 전력과 기계화 전력을 크게 확충하기 시작했다.<sup>19)</sup> 소련의 대규모 기계화 전력에 대항할 방법을 찾으려고 부심하던 미군에게 실마리를 준 것은 1973년에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이었다.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항공력과 기갑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 체계와 휴대용 대전차 무기를 사용했다. 실전에서 지대공 미사일은 이스라엘 공군의 활동을 크게 제약했고, 대전차 미사일도 이스라엘의 기갑 부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수에즈(Suez) 운하를 도하해서 이스라엘의 바레프(Barew) 방어선을 돌파하고 시나이(Sinai) 반도에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이스라엘 군대의 방어 계획을 무너뜨렸다. 이 성공은 헬리콥터를 이용한 특공부대의 운용, 대전차 화기 및 대공 무기와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통합 운용, 제병협동작전을 통한 세밀한 도하작전 실행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전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재래식 전력이 가질 역할에 관한 관심이 새로 고조되었다.<sup>20)</sup>

18) 해리 서머스 (민평식 옮김), 『미국의 월남전 전략』 (병학사, 1983), 107-117쪽.

19) David Glantz, *Military Operational Art: In Pursuit of Deep Battle* (London: Frank Cass, 1991), pp. 203-211.

20) Jacob Kipp, "Operational Art and the Curious Narrative on the Russian Contribution: Presence and Absence over the Last 2 Decades," in Stephen J. Blank and Richard Weitz (eds.), *The Russian Military Today and Tomorrow: Essays in Memory of Mary Fitzgerald* (Carlisle,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10), p. 220; 노양규, 「미국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35쪽.

미래의 전쟁이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는 순수 재래식 전쟁, 또는 설령 핵무기가 사용되더라도 전면 핵전쟁보다는 제한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지자, 미군은 다시 소련과 바르샤바 조약군의 대규모 기계화 전력에 대항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그리고 아울러 베트남 전쟁의 패전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내야 할 과제에 부딪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전에는 관심 밖에 머물던 작전술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수용해야 할 동기가 마련되었다.<sup>21)</sup> 미군의 베트남 전쟁 수행을 비판적으로 본 에드워드 루트왁은 전력과 전술 사이에 “중간 수준”이 없었다는 점이 미군의 패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중간 수준에 “전쟁의 작전적 수준”(operational level of war)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미군이 승리하려면 그러한 개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22)</sup> 루트왁의 주장은 미군 군사교범에 반영되었고, 군사교범 저술을 담당하는 훈련교리 사령부의 사령관 글렌 오티스(Glenn K. Otis) 중장의 지시에 따라 1982년판 「야전교범 요무령」(FM-100/5)에서는 전쟁이 세 가지 수준으로, 즉 “전략적 수준의 전쟁”, “작전적 수준의 전쟁”, “전술적 수준의 전쟁”으로 구분되었다.<sup>23)</sup>

한편, 독일국방군의 영향을 받아 1940년대 후반에 미군 군사교범에 기재되었던 능동방어(active defense) 개념이 다시 주목을 받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독일국방군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군이 추진 하던 개혁의 본보기로 떠올랐다.<sup>24)</sup> 독일국방군이 미국의 개혁 모델로

21) Swain, “Filling the Void,” p. 156.

22) Edward Luttwak, “The Operational Level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6, no 3 (Winter 1980-81), pp. 61-67.

23) *Field Manual 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GPO, 1982), pp. 2-3; 해리 섬머스 (권재상·김종민 옮김), 『미국의 걸프전 전략』 (간디서원, 2005), 166쪽.

24) 대표적으로 마틴 판 크레펠트 (주은식 옮김) 『전투력과 전투수행』 (한울, 1988)이 있다. 판 크레펠트는 제2차 세계대전기의 미군과 독일군을 문화, 제도, 사회 차원에서 분석하면서 독일군이 미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뛰어난 전투력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루트왁도 작전적 수준의 모델로 독일군의 프랑크 침공을 제시하고 있다. Luttwak, “The Operationa Level of War,” pp. 67-79.

부상하게 된 한 계기는 백악관 국가안보실의 주최로 1980년에 열린 워게임(war game)이었다. 이 워게임에는 독일군의 장군참모 제도와 총참모본부 체계를 연구하다가 독일군 승배자가 된 트레버 듀푸이(Trevor Dupuy) 대령의 초청으로 헤르만 발크(Hermann Balck)와 프리드리히 폰 멜렌틴(Friedrich von Mellenthin)이 참여했다. 제2차 세계대전기에 독일국방군 장군이었던 발크와 멜렌틴은 독일국방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군을 상대로 구사했던 기동방어를 이 워게임에 적용해 바르샤바 조약군의 가상 침공을 물리쳐서 미군 장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sup>25)</sup>

발크와 멜렌틴은 소비에트 연방과 소련군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인물이 결코 아니었다. 이 두 사람은 “소련 체제의 군대는, 기병 창을 든 카자크(kazak; Cossack) 기병이든 AK47 자동소총을 들고 보병전투 차량(Boevaia Mashina Pekhoty)에 탑승하는 차량화 보병이든, 이반(Ivan)은 이반이어서 유연하지 못한 존재라는 확신”, 즉 독일군 장교들이 오랫동안 소련군에 품었던 편견을 고스란히 간직한 인물들이었다.<sup>26)</sup> 멜렌틴은 회고록에서 소련군의 전술을 분석하는 소단원의 서두부터 “소련군 병사들의 성격과 기질, 그리고 전형적 전투 방식 등은 현저하게 변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sup>27)</sup> 앞서 언급된 워게임 훈련에

25) Trevor Dupuy, *General Balck and von Mellenthin on Tactics: Implications for NATO Military Doctrine* (Maclean, VA.: BDM Corporation, 1980), pp. 22-38. 존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그러한 기동방어가 이론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역사적으로 제대로 성공한 적이 없는 위험한 방법이며, 서독에는 그러한 기동방어를 수행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이 없음을 지적하며 기동방어 개념을 비판하고 경계했다. John Mearsheimer, “Maneuver, Mobile Defense, and the NATO Central Fro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6, no. 3 (Winter 1980-81), pp. 104-122.

26) Dennis E. Showalter, “A Dubious Heritage: The Military Legacy of The Russo-German War,” *Air University Review*, vol. 36 (March-April 1985), p. 16. 가장 흔한 러시아 남자 이름인 “이반”은 서방 군대가 러시아 군인을 일컫는 속칭이자 비칭이다.

27) 프리드리히 폰 멜렌틴 (민평식 옮김), 『기갑전투』 (병학사, 1986), 387쪽.

서 멜렌틴은 소련군에 우월감을 드러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러시아인은 종잡을 수 없어요. 오늘 그는 아주 철저하게 공격하는 영웅인데, 내일은 완전히 겁에 질려 아무 것도 하려 들지 않지요. (.....) 우리 말을 믿으세요. 그들은 무리지만 우리는 개인입니다. 이것이 러시아 군인과 유럽 군인의 차이입니다.”<sup>28)</sup> 러시아 군인이 더 교육을 받거나 서방의 사상에 노출되어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발크는 딱 잘라 이렇게 말했다. “아니오. 나는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sup>29)</sup> 발크와 멜렌틴은 소련군이 몇십 년이 지나도 어떠한 발전도 없이 정체되어 있다고 간주했다. 위계임 이후에 독일국방군의 방법을 연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미군 장교 사이에서 성행했다.<sup>30)</sup> 1940년대 후반의 상황과 다를 바 없이, 냉전기에도 나치 군대의 인물들이 미군의 군사 발전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련군에 관한 편견을 키웠다.

그러나 소련군은 제자리걸음을 한다는 이러한 인식은 실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1977년에 총참모장이 된 니콜라이 오가르코프(Nikolai Ogarkov) 육군원수의 주도 아래 소련군은 기술 변화로 말미암아 “군사 혁신”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고 전구전략 작전(teatral’naia strategicheskaia operatsiia), 작전기동군(operativnaia manevrennaia gruppa), 정찰-타격 복합체(rekognostsirovochnoe-udarnyi kompleks)를 비롯한 새 개념을 고안해서 훈련에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sup>31)</sup> 한편, 미국 장교단과 랜드 연구소(RAND Corporation)를 비롯한 안보 싱크탱크(think tank)는, 미국의 논픽션 작가 제임스 캐럴(James

28) Dupuy, *General Balck and von Mellenthin on Tactics*, p. 9, 10.

29) Ibid., p. 11.

30) Smelser and Davies, *The Myth of the Eastern Front*, pp. 121-126.

31) 오가르코프가 주도한 소련의 “군사 분야의 혁명”에 관해서는 Timothy S. Waddell, *Marshal N. V. Ogarkov and the Transformation in Soviet Military Affairs* (MA Thesis: University of Manitoba, 1999), pp. 38-102를 참고할 것. 정찰-타격 복합체에 관해서는 심경옥, “러시아의 항공우주산업과 국가안보,” 『국방개혁의 패러다임을 통한 항공우주력 건설』 (오름, 2007), 94-98쪽을 참고할 것.

Caroll)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충족 편집증”(self-fulfilling paranoia)에 따라 의회에서 국방 예산을 확충하고 예산을 더 많이 받아낼 의도로 소련군의 양적 우세를 크게 부풀려서 미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했다.<sup>32)</sup> 그러면서도 정작 미군은 소련군이 실제로는 질적 열세 탓에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기 위안에 빠져 있었다.<sup>33)</sup> 이러한 행태를 두고 글랜츠는 “유능하고 유연한 적수보다는 서툴고 유연하지 못하고 예측가능한 무리와 벌이는 전투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sup>34)</sup>

#### 4. 편견의 학술적 극복과 미군의 작전술 수용

영어권 국가의 소련군 학술연구는 1950년대부터 존재했다. 레이먼드 가토프(Reymond Garthoff)는 소련군의 군사교리 개념을 탐구했으며 전후 시기의 소련 군사전략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맬컴 매킨토시(Malcom Mcintosh)는 독소전쟁 시기의 소련군을 분석한 저작을 저술했다. 존 에릭슨은 1960년대 초에 소련군의 고위 지휘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했고 동서 진영의 긴장이 완화된 데탕트(Détente) 시기에 입수한 소련 자료를 활용해서 독소전쟁과 소련군에 관한 수준 높은 저서를 써냈다.<sup>35)</sup> 로버트 헤릭(Robert Herrick)은 소련군의 해군 전략

32) “자기충족 편집증”의 기원과 전개에 대해서는 제임스 캐럴(전일휘·추미란 옮김),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동녘, 2009), 244-351쪽을 참고할 것. 예를 들어, 스투어트 사이밍턴(Stuart Symington) 공군장관은 1960년에 소련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조만간 3,000기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소련이 1960년 초에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실제로는 겨우 2기였다.

33) Showalter, “A Dubious Heritage,” pp. 20-21.

34) David Glantz, “Soviet Offensive Ground Doctrine since 1945: Historical Overview,” *Air University Review*, no. 34 (March-April 1983), p. 26.

을 분석했다. 데이비드 존스(David Jones)는 소련 군사사 분야의 정기 간행물을 수집하고 소련 군사 분야의 모든 기본적 관련 사항을 표준 형태로 조직해서 분석한 뒤 문서화하고 서지화했다.<sup>36)</sup> 여기에 미군의 「야전교범 요무령」(FM-100/5) 1982년 판에서 “작전적 수준의 전쟁”이 정의되면서 더 나아가 작전술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더 힘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소련군만 사용하던 용어인 중심전투(*glubokii boi*)와 중심작전(*glubokaia operatsiia*), 그리고 특히 작전술이 미군의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떠올랐다.<sup>37)</sup>

이러한 성과를 배경 삼아서 소련 군사사 연구부터 경력을 쌓은 유일한 군사전문가인 데이비드 글랜츠가 등장했다. 그는 미군 장교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뒤에 북대서양 조약 기구 정보장교로 근무하다가 캔자스(Kansas) 주 포트 레븐워스(Fort Leavenworth)의 미육군지휘참모대학(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산하 전투연구소(Combat Studies Institute) 연구위원장으로 근무했다. 1979년에 일본 육상자위대가 연구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45년 8월에 소련군이 만주에서 일본 관동군(關東軍)을 상대로 펼쳤던 공세 작전을 연구해 달라고 전투연구소에 의뢰했을 때, 이 과제를 맡은 인물이 바로 글랜츠 중령이었다.<sup>38)</sup> 그는 소련 측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35) David Glatz, “The Red Army at War, 1941-1945: Sources and Interpretations,”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2, no. 3 (July 1998), p. 612.

36) *Ibid.*, p. 221.

37) Bruce Menning, “The Operational Art’s Origin,” in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pp. 13-14. 중심전투 및 중심작전 이론은 “소련 군사과학의 궁지”로 일컬어질 만큼 소련의 군사 교리의 핵심이었다. 코코신, 『군과 정치』, 229쪽.

38) David Glantz, *The Relationship between “August Storm” and “Desert Storm”* (Unpublished article, 2013), pp. 1-3. 이 연구 원고는 일본 방위연구소 전쟁사 연구회가 2013년 10월 29일 ~ 11월 1일에 도쿄에서 개최한 학술 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저자의 호의로 입수할 수 있었다. 이 학술 회의에 관해서는 防衛研究所, *NIDS News*, 2013년 11月号([www.nids.mod.go.jp/publication/nids\\_news/pdf/2013/news201311.pdf](http://www.nids.mod.go.jp/publication/nids_news/pdf/2013/news201311.pdf)), p. 3을 참고할 것. 당시의 연구는 David Glantz,

면서 서방의 편견과는 달리 소련의 군사 연구가 정확하고 중립적이며 소련군의 군사술이 생각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소련군에 관한 서방의 인식과 평가에 강한 의문을 품은 글랜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1983년에 완성한 논문 「8월의 폭풍: 소련군의 만주 전략 공세」(August Storm: The Soviet Strategic Offensive in Manchuria)에 투영했다.<sup>39)</sup>

논문 서두에서 글랜츠는 “서방인은 오직 지리, 기후, 엄청난 병력 수가 동부전선에서 독일의 군사 기량과 능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며 기존의 통념을 비판한 뒤 “이런 인상에는 동부전선에서 펼쳐진 작전의 분석에 나타나는 독일 특유의 편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글랜츠는 그러한 인식이 생겨난 까닭과 그것에 내포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이런 서방의 틀린 인식은 역사를 곡해하고, 그 곡해는 (...) 소련의 - 과거, 현재, 미래의 - 군사적 역량에 관한 오늘날의 평가를 왜곡한다. 동부전선의 전쟁에 관한 우리의 견해는 (...) 독일의 1941년과 1942년의 경험에서 비롯한다. 그 견해는 구데리안(Guderian), 멜렌틴, 발크, 만슈타인(Manstein) 같은 이의 견해이다. 이들은 모두 다 서방 군사사의 영웅이지만, 자기의 작전술적인, 전술적인 성공으로 얼마간은 전략적 실체를 보지 못한 영웅이다. 1943~44년이 되면, 그들의 “영광스러운” 경험은 끝나버렸다. 저 독일인들은 1942년 이후에 자기의 공적이 바닥나자 멀리서 전략적 재앙이 보이는 가운데 거두는 전술적 승리에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저 1941년의 정복자들의 견해, 즉 일반화되어서

---

“August Storm: Soviet Strategic Offensive in Manchuria, 1945,” *Leavenworth Paper*, no. 7 (February 1983); David Glantz, “August Storm: Soviet Tactical and Operational Combat in Manchuria, 1945,” *Leavenworth Paper*, no. 8 (June 1983)로 저술되었다. 두 연구논문은 2003년에 각각 개정판인 David M. Glantz, *The Soviet Strategic Offensive in Manchuria, 1945 “August Storm”* (London: Frank Cass, 2003)과 David M. Glantz, *Soviet Operational and Tactical Combat in Manchuria, 1945 “August Storm”* (London: Frank Cass, 2003)로 출간되었다.

39) Glantz, *The Relationship between “August Storm” and “Desert Storm”*, p. 9.



동부전선의 전쟁 전체의 특성을 규정하는 저들의 초기 인상이 아직도 받아들여지는 관점으로 남아 있다. (.....)

동부전선에서 독일이 펼친 작전에 관한 이 기우뚱한 견해는 소련군에 관한 부정확할지언정 마음은 놓이는 이미지를 전해준다. 우리는 나중에 자기를 변명하는 책을 쓴 저 독일인들을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 큰 진실을 잊고 말았다. 그들의 나라가 전쟁에서 졌다는, 그들이 “서툴다”고 묘사한 소련군과 맞서다가 근본적으로는 동부전선에서 전쟁에 졌다는 진실 말이다.<sup>40)</sup>

소련군의 만주 작전이 소련군이 이룬 군사적 성과에 주목하며 글랜츠는 결론에서 소련군이 만주에서 과시했던 군사 기술이 “미국의 전술가들에게도 역사적 흥미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1)</sup> 연구논문 「8월의 폭풍」이 나온 1983년에 미육군지휘참모대학 전임강사로 부임한 글랜츠는 이듬해까지 소련 군사사와 군사술, 특히 소련 작전술의 이론과 실제에 관해 논문을 쓰고 강의를 하며 연구의 심도를 키우고 제이콥 키프, 브루스 메닝, 그레이엄 터비빌, 제임스 슈나이더(James J. Schneider)처럼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전문가와 교류했다.<sup>42)</sup> 1984년 하반기부터 1985년까지는 미육군대학원(U.S. Army War College)에서 열린 전쟁술 심포지엄(Art of War Symposium)을 주도하면서 소련군이 1942년 12월과 1945년 4월 사이에 펼쳤던 작전을 분석

---

40) Glantz, *August Storm: The Soviet Strategic Offensive in Manchuria, 1945*, pp. xiii-xiv.

41) Ibid., p. 177. 영국 소련학연구소의 설립자이자 초대 소장인 피터 비거(Peter Vigor)도 소련군의 만주 전역을 연구했다. 피터 비거 (이찬중 옮김), 『소련 전격전 이론』(국방대학원, 1986), 112~131쪽. 비거는 당시의 소련군이 “전쟁 초기”(nachal'nyi period voyny)에서 기습을 통하여 단기간에 승리를 거두는 것을 중시하고 소련군의 만주 작전을 그 사례로 삼는 경향을 고찰했다.

42) David Glantz, *The Soviet Airborne Experience* (Fort Leavenworth, Kansas: Combat Studies Institute, 1984); “Soviet Operational Formation for Battle: A Perspective,” *Military Review* (February 1983); “The Nature of Soviet Operational Art,” *Parameter* (Spring 1985).

했다.<sup>43)</sup>

비슷한 흐름이 영국에서도 나타났다. 영국의 샌드허스트(Sandhurst) 왕립육군사관학교의 부설 연구기관인 소련학연구소(Soviet Studies Research Centre)에 속한 연구자인 크리스토퍼 도넬리(Christopher Donnelly), 크리스토퍼 벨라미(Christopher Bellamy), 찰스 딕(Charles Dick)은 소련군의 작전술, 특히 작전기동군 개념을 연구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소련군의 기계화 전력에 대처할 방법을 모색했다.<sup>44)</sup> 이러한 노력에 존 에릭슨도 가세했다. 작전술의 의미를 깨달은 에릭슨은 작전술이 새로운 전쟁 개념을 만들기 위한 기술 변화를 수용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전쟁을 더 크게 보는 데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고 작전술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45)</sup> 또한 그는 화력과 기동을 동등하게 중시하고 전술과 작전을 구분한다는 점에서 1982년판 「야전교범 요무령」(FM-100/5)의 개념도 소련군의 개념을 꽤 많이 차용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

43) David Glantz, “1984 Art of War Symposium, From the Don to the Dnepr: Soviet Offensive Operations December 1942 – August 1943, a Transcript of Proceedings,” (Carlisle, PA.: Center for Land Warfare, U.S. Army War College, March 26–30, 1984); Glantz, “1985 Art of War Symposium, From the Dnepr to the Vistula: Soviet Offensive Operations November 1943 – August 1944, a transcript of Proceedings” (Carlisle, PA.: Center for Land Warfare, U.S. Army War College, April 29–May 3, 1985); Glantz, “1986 Art of War Symposium, from the Vistula to the Oder: Soviet Offensive Operations – October 1944–March 1945, A transcript of Proceedings” (Carlisle, PA.: Center for Land Warfare, U.S. Army War College, May 29–23, 1986).

44) Christopher Donnelly, “Operational Manoeuvre Group: A New Challenge to NATO,” *International Defence Review*, 9 (1982); Christopher Bellamy, “Antecedents of the Modern Soviet Operational Manoeuvre Group (OMG),” *RUSI Journal*, vol. 129, no 3 (September 1984); Charles J. Dick, “Soviet Operational Manoeuvre Group: A Closer Look,” *International Defence Review*, 6 (1983).

45) Adamsky, *American Strategic Culture and the U.S.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p. 16.

스베친 장군과 이세르손(Isserson) 장군, 투하첵스키(Tukhachevskii) 육군원수는 [미군에게] 감명받고 치켜 세워졌을 것이다. 심지어 자기의 저작권에 대한 오랜 침해를 눈감아 줄만큼 충분히 말이다.<sup>46)</sup>

한편, 훈련교리사령부 사령관 윌리엄 리처드슨(William Richardson) 중장이 글랜츠의 연구 성과를 눈여겨보았다. 소련과 소련군을 장기적으로 더 깊이 분석할 연구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리처드슨은 그러한 과제를 맡을 군인 및 민간인 전문가로 선정해서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했다. 리처드슨은 브루스 메닝과 대령으로 진급한 글랜츠가 그 연구소를 이끌 적임자라고 보고 그들에게 1985년부터 훈련교리사령부 산하에 소련군사연구소를 창설해서 소련군의 전술, 작전술, 전략, 교리를 연구하라고 지시했다.<sup>47)</sup> 소련군사연구소의 임무는 영국군의 전투 지휘 교리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소련학연구소의 업무처럼 소련의 개방된 군사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소련군사연구소와 영국의 소련학연구소는 러시아어 서적을 찾아내는 일에 협력했고 소련의 기록보존소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도 했다.<sup>48)</sup>

46) John Erickson, “Development of Soviet Military Doctrine,” in John Gooch (ed.), *The Origins of Contemporary Doctrine*, Strategic and Combat Studies Institute Occasional Paper no. 30 (Camberley, UK: Strategic and Combat Studies Institute, 1997), pp. 106–107. Adamsky, *American Strategic Culture and the U.S.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p. 17에서 재인용. 투하첵스키와 이세르손은 소련군의 중심작전 이론 개발을 주도한 인물들이었다. 리처드 록-풀런(Richard Lock-Pullan)도 당시 미군이 소련군의 중심전투 개념을 비롯한 여러 개념을 받아들였다고 단언했다. Richard Lock-Pullan, *U.S. Intervention Policy and Army Innovation: From Vietnam to Iraq* (New York: Routledge 2006), p. 93.

47) Jacob Kipp, “FMSO-JRIC and Open Source Intelligence: Speaking Prose in a World of Verse,” *Military Intelligence Professorial Bulletin* (January–February 2006). <http://www.thefreelibrary.com/FMSO-JRIC+and+Open+Source+Intelligence%3a+speaking+prose+in+a+world+of...-a0146354022>(사이트 접속일 2017년 5월 1일). 소련군사연구소는 1989년에 해외군사연구소(Foreign Military Studies Office)로 개칭되었고, 역할에도 변화가 있었다.

48) Kipp, “Operational Art and the Curious Narrative on the Russian Contribution,” p. 226.

글랜츠는 소련군사연구소에서 키프와 메닝을 비롯한 동료와 함께 러시아어 자료를 분석하고, 1986년에는 소련을 몸소 찾아가 미국과 소련의 학자들 사이의 군사사 심포지엄에 참여해서 군사사 분야에서 동서 진영이 어떻게 이견을 좁히고 집점을 찾을지를 논의했다.<sup>49)</sup> 소련군사연구소는 1988년에 소련 군사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계간 학술지 『소련군사연구지』(The Journal of Soviet Military Studies)를 만들고 글랜츠를 편집장으로 내세웠다.<sup>50)</sup> 키프와 함께 글랜츠는 소련군의 작전술을 연구 주제로 삼아 그 성과를 알렸고 소련군이 펼쳤던 작전을 연구하는 서방 및 러시아의 소장 학자를 복돋았다.<sup>51)</sup> 메닝은 제정 러시아 군사사를 연구해서 소련 군사사와 작전술의 기원을 탐구했으며,<sup>52)</sup> 터비빌은 소련군의 군수보급 체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sup>53)</sup>

49) 글랜츠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독소전쟁과 소련군에 대한 미국의 기존 인식과 소련군에 관한 편견을 비판한 David Glantz, *American Perspectives on Eastern Front Operations in World War II* (Fort Leavenworth, Kansas: SASO, 1987)를 발표했다. 소련군에 대한 서방 세계의 편견에 관해서는 Ibid., pp. 27-8을 참고할 것.

50) 『소련군사연구지』는 1993년에 『동유럽군사연구지』(The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로 명칭이 변경되어 소련뿐만 아니라 공산 진영의 군사문제 전 반을 다루는 학술지가 되었다.

51) 대표적으로 David Glantz, *Soviet Military Operational Art: In Pursuit of Deep Battle* (London: Frank Cass, 1991)을 참고할 것. 그리고 Jacob W. Kipp, "Mass and Maneuver and the Origins of Soviet Operational Art," in Carl Reddel (ed.), *Transformation in Russian and Soviet Military History: Proceedings of the Twelfth Military History Symposium, USAF Academy, 1986* (Washington, DC: U.S. Air Force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99), pp. 87-116도 참고할 것.

52) Bruce W. Menning, "The Deep Strike in Russian and Soviet Military History," *The Journal of Soviet Military Studies*, vol. 1 (April 1988), pp. 9-28; Bruce W. Menning, *Bayonets before Bullets: The Imperial Russian Army, 1861-1914* (Indiana University Press, 1992).

53) Graham H. Turbiville Jr., "Sustaining Theater Strategic Operation," *The Journal of Soviet Military Studies*, vol. 1 (April 1988), pp. 81-107; Graham H. Turbiville Jr., "Soviet Operational Logistics, 1939-1990," in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pp. 293-326.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배출하기 시작하자, 예전에는 서방의 소련 군사사 전문가들을 모조리 “부르주아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던 소련의 학자들 사이에서도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sup>54)</sup> 1985년에 집권한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가 개방 정책(Perestroika)을 펼치면서 운신의 폭이 예전보다 크게 넓어진 소련의 학자들은 미국의 『소련군사연구지』 창간호를 분석한 뒤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우리는 이 새 학술지 창간호의 등장을 결정하는 몇 가지 특성, 즉 다른 무엇보다도 그 학술지 필자들의 뛰어난 전문성, 그리고 중요한 것을 구분해내고 탐구되는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내는 그들의 능력을 언급하고자 한다. (.....) 이 학술지의 필진은 러시아와 현대 소련의 군사사뿐만 아니라 소련군이 풀어내야 할 문제들도 결해야 할 문제들도 잘 파악하고 있다. 이 학술지는 소련 군사교리의 이론적 개념을 객관적이고도 철저하게 평가하는 편이다. 이 점이 이 학술지가 소련군 문제를 다루는 다른 간행물과 저작과 꽤나 구분되는 특색이다.<sup>55)</sup>

이렇게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소련의 군사 이론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면서 작전술 개념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1985년에 미육군지휘참모대학에 고등군사연구원(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을 창설하고 초대 원장을 지낸 후바 보쉬 데 체게(Huba Wass de Czege) 대령은 한 해 전인 1984년에 그 교과 과정을

54) 이러한 원색적인 비난의 사례로 B. Nezorov, “Comments on ‘Bourgeois Falsification’ of Battle of Moscow in WW II,” *Military History Journal (Voenno-Istoricheskii zhurnal)*, no. 4 (April 1982), pp. 39-44를 들 수 있다.

55) V. Zimonin and A. Prikhodchenko, “Perestroika in Soviet Military Science as Mirrored in Western Press,” *Military History Journal (Voenno-Istoricheskii zhurnal)*, no. 3 (March 1989), p. 53. 저자들은 『소련군사연구지』가 “이 학술지의 논문들에 나타난 저자들의 판단에서 소련 군사교리 수정에 관한 논의에 계급적 접근을 하고 그 요소들이 서방과 불가피하게 대치된다고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우리는 이 학술지의 관심사를 넓힐 기회를 위해 소련 군사연구의 신뢰할 수 있는 최대의 정보를 주어서 학술지 편집진을 돕고 소련의 군사전문가들이 이 학술지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며 소련군사연구소와 협력할 의지를 내비쳤다.

개설할 준비를 하면서 이미 장교들에게 작전술을 가르칠 구상을 하고 있었다.<sup>56)</sup> 보쉬 데 체계는 작전술 교육을 위해 고등군사연구원에 2년 기간의 고등작전연구 과정(Advanced Operational Studies Fellowship)을 설치했고 제임스 슈나이더를 강사로 기용했다.<sup>57)</sup> 이 고등작전연구 과정의 이론 강의를 담당한 슈나이더는 소련군의 주요 이론가인 투하첵스키와 블라디미르 트리안다필로프(Vladimir Triandafillov)의 저서들에 관한 강좌를 교육 과정에 넣었다.<sup>58)</sup> 1985년에는 투하첵스키의 저서 『전쟁의 새로운 문제』(Novye voprosy voiny)를 미육군대학원이 번역한 판본이 교육 과정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새로운 문제』는 미완성 저서인 탓에 작전술 교육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고등군사연구 과정은 1986년에 트리안다필로프의 대표 저서 『현대군의 작전 특성』(Kharakter operatsii sovremennykh armii)를 영어로 번역해 달라고 소련군사연구소에 의뢰했고, 제이콥 키프가 그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 슈나이더가 교재로 사용한 『현대군의 작전 특성』 영어본은 고등군사연구 과정을 이수하는 생도들에게 고전 전략과 현대 작전술의 이해 사이에 놓인 지적 교량의 역할을 해주는 저작이었다.<sup>59)</sup>

56) Kevin C. M. Benson,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Commemorative History, 1984-2009* (Fort Leavenworth, Kansa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09), p. 6.

57) Benson,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Commemorative History*, p. 18. 상급작전연구 과정은 1995년에 상급작전술연구 과정(Advanced Operational Arts Studies Fellowship)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이콥 키프도 전임강사로 근무했다.

58) Swain, "Filling the Void," pp. 162. 슈나이더의 교육에 관해서는 Benson,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Commemorative History*, pp. 28-30을 참고할 것. 트리안다필로프는 투하첵스키를 도와 중심작전 이론의 출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다.

59) James J. Schneider, "Introduction: The Legacy of V. K. Triandafillov," in Vladimir K. Triandafillov, *The Nature of the Operations of Modern Armies* (London: Routledge, 1994), pp. xxvi-xxvii.

마침내 우월감을 내세우지 않고 미군은 소련군이 개발한 개념인 작전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sup>60)</sup> 1986년에 고등군사연구 과정의 주도로 개정된 미육군 「야전교범 요무령: 작전」(FM-100/5 Operations)은 드디어 1982년의 교범을 넘어서서 군사술을 소련군처럼 전략/작전술/전술로 명확하게 구분했다.<sup>61)</sup> 미군은 적성 국가의 군사 이론을 연구해서 그 대처법을 찾는 수준을 넘어 그 이론을 체화하고 적용하게 된 셈이다.<sup>62)</sup> 이러한 자세는 편견을 극복한 결과이며, 또한 그 편견의 극복은 미국 군사학자들의 열성적 연구를 밑바탕 삼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냉전 시대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소련군이 자랑하는 군사학 이론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수용하고 체화하면서 미군이 발휘한 인내는 “베트남 전쟁 이후 각 군의 군사 사상의 르네상스를 입증한” 1991년 걸프 전쟁(the Gulf War)에서 놀라운 열매를 얻었다.<sup>63)</sup>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 1990년의 미군 사단이 1945년의 군단의 임무를, 1990년의 미군 군단이 1945년의 야전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커지며 군단이 작전술 수행의 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 강화된 부대가 작전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등군사교육원에서 양성된 참모장교들이 배치되었다. 이 참모장교들은 1990년의 “인터널 룩”(Internal Look) 훈련에 참여하며 작전술의 수행을 경험했다. 미군은 1944년에는 필요한 개념틀인 작전술이 없어서 곤란을 겪었지만, 1990년에는 이러한 불균형이 더는 없었다.<sup>64)</sup> 작전술 도입이야말로 대규모 작전술적 기동이었던 걸프전쟁의 지상 전역이 원활히 수행되게 만든 원동력이었

60) Menning, “The Operational Art’s Origin,” p. 14.

61) *Field Manual 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GPO, 1986), p. 9.

62) 고등군사연구 과정은 미군 야전교범을 개정하던 1985년에 소련의 군사 전문가들의 이론을 많이 참고했고, 소련군사연구소 소속 연구자들이 이 과정에서 많이 도왔다. Schneider, “Introduction,” p. xxvi.

63) 섬머스, 『미국의 걸프전 전략』, p. 183.

64) John S. Brown, “The Maturation of Operational Art: Operations Desert Shield and Desert Storm,” in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pp. 440-444.

다고 할 수 있다.<sup>65)</sup>

특히 걸프 전쟁에 투입된 미군을 지휘하는 미국중부사령부(United States Central Command)의 수뇌부를 이루고 이 전쟁의 양대 작전인 「사막의 방패」(Desert Shield) 작전과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작전<sup>66)</sup>을 기획하고 작성한 참모장교 70여 명이 있었다. “제다이 기사단”(Jedi Knights)이라고 불린 이 참모장교들은 미육군지휘참모대학교 고등군사연구원의 고등군사연구 과정에서 투하첵스키와 트리안다필로프의 저서를 탐구하면서 작전술을 익히고 소련군의 기법에서 영감을 얻었던 이들이었다.<sup>67)</sup> 그리고 이 장교들은 미육군지휘참모대학에서 데이비드 글랜츠의 저서 『8월의 폭풍』을 교재로 1945년 8월에 만주에서 소련군이 일본 관동군을 격파했던 전략적 공세를 탐구한 이들이기도 했다.<sup>68)</sup> 걸프 전쟁에서 “제다이 기사단”은 작전기획수립 과정에서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고등군사연구 과정 교수진에게 조언을 요청했으며, 그럴 때마다 고등군사연구 과정의 핵심 구성원인 제임스 슈나이더가 소련군사연구소의 제이콥 키프와 함께 그 문제를 연구하고 해답을 찾아내어 조언을 해주었다. 슈나이더는 소련군의 군사 이론을 바탕으로 문하생인 미군 장교들에게 작전술을 가르친 군사 이론가였다. 걸프전쟁 뒤에 키프는 글랜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65) 노양규, 「미국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92쪽.

66) 「사막의 방패」 작전은 1990년 8월 2일부터 이듬해 1월 17일까지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고 이라크에 진공할 군사 기지를 구축하는 작전이었으며, 「사막의 폭풍」 작전은 1991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미군이 동맹국 군대와 함께 이라크 군대를 상대로 벌인 지상전에서 수행된 작전이였다.

67) Schneider, “Introduction: The Legacy of V. K. Triandafillov,” p. xxvii. “제다이 기사단”이라는 명칭은 조지 루카스(George Lucas) 감독의 영화 「스타워즈」(Star Wars)에 나오는 제다이 기사단에서 따왔다. 이 “제다이 기사단”이 작전 기획에서 맡은 역할에 관해서는 John S. Brown, “The Maturation of Operational Art: Operations Desert Shield and Desert Storm,” in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pp. 444-459을 참고할 것.

68) Glantz, *The Relationship between “August Storm” and “Desert Storm”*, p. 3.



짐(Jim)[제임스 슈나이더 고등군사연구원 교수]은 ..... 그 제다이들이 되보내온 문제 하나에 매달렸습니다. “이라크군의 중심(重心, center of gravity)은 무엇이었나?” 짐과 나는 그 문제를 철저히 연구해서 공화국수비대라는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목표는 만주에서의 목표와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적군(관동군)이 목표였지, 지형이 목표는 아니었습니다.<sup>69)</sup>

또한, 소련 군사이론의 전문가인 키프와 슈나이더는 문하생이었던 “제다이 기사단”에게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 정규군을 포위하고 아군을 구출하고자 그 포위망을 돌파하려는 이라크의 공화국수비대를 측방기동으로 격멸하라고 조언했다.<sup>70)</sup>

걸프 전쟁에서 승리한 미군이 수행한 작전을 기획하고 수립한 미군의 미국중부사령부 참모장교들이 얼마만큼 소련군의 군사 이론과 경험에 심취해 있었는지는 걸프 전쟁의 작전명에서 드러난다. 작전이 기획되는 초기 단계에서 구상된 원래의 작전명은 “사막의 검”(Desert Sword)이나 “사막의 기병도”(Desert Sabre)였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정된 작전명은 다른 아닌 “사막의 폭풍”이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다. “제다이 기사단” 가운데 몇 사람이 이라크 전쟁이 끝난 뒤에 글렌츠에게 말해준 바에 따르면, 작전기획 과정이 진행될 때 포트 레븐워스의 미육군지휘참모대학에서 온 “제다이” 한 명이 “사막의 검”이나 “사막의 기병도”로 거론되던 작전명을 바꾸자고 계속 주장했다. 마침내 그

69) Ibid., p. 5. (짐은 제임스 슈나이더의 애칭.) 실제로 중부군사령관은 참모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국경의 와디 알 바틴(Wadi Al-Batin)의 서쪽에서 포위 작전을 실행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 포위 작전의 목적은 다른 다국적군 군대가 쿠웨이트를 향해 조공을 펴는 동안에 주공 부대가 이라크군 주력 부대의 후방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 공격의 주목적은 이라크의 공화국수비대를 섬멸하는 것이었다. 국방군사연구소, 『걸프전쟁: 미국방부의최종보고서』(국방군사연구소, 1992), 476쪽. 소련군의 만주 작전과 미군의 「사막의 폭풍」 작전을 비교한 연구로는 류한수, 「1945년 “8월의 폭풍”과 1991년 “사막의 폭풍”: 붉은 군대의 만주 전역과 미군의 이라크 전역의 유사성 분석」, 『역사문화연구』, 제63권 (2017년 8월), 171-206쪽이 있다.

70) Glantz, *The Relationship between “August Storm” and “Desert Storm”*, pp. 5-6.

제안을 받아들인 “제다이 기사단”은 작전의 모델이 1945년 8월에 소련군이 만주에서 수행한 전역을 분석한 『8월의 폭풍』이었음을 기리고자 원래의 작전명을 내버리고 “사막의 폭풍”(Desert Storm)을 작전명으로 정했다.<sup>71)</sup> 1991년 서남아시아의 사막에 휘몰아친 폭풍의 기원은 1945년 8월에 동북아시아의 만주에 휘몰아친 폭풍에 있었던 셈이다.

## 5. 맺 음 말

작전술 개념이 부재했던 미군은 베트남 전쟁 패배의 충격 속에서 개혁을 추진했다. 그 개혁 과정에서 냉전의 동서 갈등을 틈탄 독일국방군 인사들의 영향으로 독일국방군이 미군의 개혁 모델이 되었으며 독일국방군이 소련군에 품었던 편견이 미국에서 확대재생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데이비드 글랜츠를 비롯한 서방의 소련군사사 전문가들은 적성국인 소련의 군대를 제대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 소련군의 군사 이론과 개념을 능동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함의를 담은 연구를 배출했다. 그 결과로 소련 군사이론가들의 저서가 미육군지휘참모대학 고등군사연구원의 고등군사연구 과정에서 교재로 채택되었고, 소련군에 관한 편견에서 벗어난 미육군은 1986년판 「야전교범 요무령」 FM-100/5에 소련군의 작전술 개념을 공식적으로 도입했다. 미군 교육기관에서 소련군의 군사 이론, 특히 작전술을 배운 미군의 참모장교들은 1991년에 걸프전에서 활약하면서 미군의 대승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알갭게도 1991년은 오히려 미군에서 작전술 개념이 쇠퇴하는 기점이 되었다. 소련이 해체되면서 냉전 체제가 끝나자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크게 줄었으며, 서방 진영의 안보를 위협하는

71) Ibid., pp. 6-7.

세력으로 여겨지던 소련이 무너지자 소련군의 작전술을 비롯한 소련학의 수요가 사라졌다. 걸프 전쟁에서 “소련식 군대”인 이라크군을 무너뜨리고 완승을 거두었으니 소련군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인식이 미국에 생겨났다.<sup>72)</sup> 한편, 재래식 전쟁보다는 대테러전과 대반란전이 새로운 안보 환경으로 떠오르면서 대규모 재래전을 배경으로 탄생한 작전술 및 소련군 연구는 인기를 잃었다.<sup>73)</sup> 더욱이 1999년 발칸 반도의 내전에 항공전력 위주로 개입해서 효과를 본 미군은 대규모 지상전의 가치를 평가절하했으며, 최소한의 지상군 병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본다는 효과기반 작전(effect-based operation)이나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centric warfare) 개념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조에서 미국의 도널드 럼스펠드(Donald Rumsfeld) 국방장관은 2003년에 군사 혁신에 기초한 새로운 군사력이 지닌 정밀 타격과 정보처리 능력으로 강화된 10만 명 미만의 병력으로 이라크를 침공하라고 지시했다.<sup>74)</sup> 최소한의 지상군 전력으로 침공을 개시한 미군은 단기간에 바그다드를 함락하고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대규모 작전술을 무시한

72) Kipp, “Operational Art and the Curious Narrative on the Russian Contribution,” p. 200. 당시의 이라크군의 무기 체계가 거의 소련의 무기체계였고 초급 장교들 가운데 소련의 군사교육 기관으로 유학을 다녀온 장교들이 있었지만, 이라크군은 영국의 식민지 주둔군을 모태로 하고 있는 관계로 교리와 편제, 계급이 소련군보다는 영국군과 유사했으며 고위급 장교들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사관학교에서 유학한 인물들이었다.

73) 미육군의 군사사연구소(Center for Military History)에서 간행한 작전술을 다룬 연구 선집이며 1980년대 말에 출간 예정이었던 *On Operational Art*는 1994년에 출간되었고, 1990년대 초에 출간될 예정이었던 *Historical Perspectives on Operational Art*는 2005년에야 출간되었다. 미국의 군사이론가 에릭 달(Erik Dahl)은 네트워크 중심전의 원칙은 작전술의 원칙과 아무 관계도 없으며, 네트워크 중심전의 시대에 작전술은 죽었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린드(William Lind)는 이른바 “제4세대 전쟁”의 시대에 작전술은 과거의 존재일 뿐이며 제4세대 전쟁에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Ibid., p. 200, 202.

74) 이근욱, 『이라크 전쟁: 부시의 침공에서 오바마의 철군까지』 (한울아카데미, 2012) 94쪽. 에릭 신세키(Eric Shinseki) 미육군참모총장은 주요 군사작전이 종결된 이후 이라크 치안 유지에 최소한 “수십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증언했지만, 럼스펠드는 이러한 주장을 “터무니없다”며 무시했다.

대가로 이후의 이라크 안정화에 투입할 병력이 크게 모자란 상태에 처한 미국은 여러 해 동안 이라크 전쟁의 “대실패”(fiasco)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sup>75)</sup> 그 결과로 작전술이 다시 미국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노력과 자원이 대테러전에 집중된 탓에 미군의 작전술은 스베친의 원래 정의나 1986년 교범의 정의와는 거리가 멀어졌다.<sup>76)</sup>

비록 소련군의 산물인 작전술이 평가절하되고 소련학 연구의 수요가 급감했을지라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 뒤 예전에는 감춰져 있던 자료가 개방되면서 학자들이 신선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글랜츠를 비롯한 당시의 연구자들은 소련군 작전술 연구에서 얻은 성과와 새롭게 개방된 자료를 바탕으로 삼아서 독소전쟁사 연구를 계속 진행했다. 또한 찰스 딕은 1944년 여름을 기준으로 서부전선의 서방연합군과 동부전선의 소련군의 작전술 수행을 비교하고 분석하며 소련군이 서방연합군보다 작전술적 측면에서 더 뛰어났음을 입증하는 연구서를 2016년 말에 저술하여 1980년대의 소련군사연구소와 소련학연구소의 연구 경향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sup>77)</sup>

[원고투고일: 2017. 7. 16, 심사수정일: 2017. 11. 19, 게재확정일: 2017. 11. 21.]

주제어: 작전술, 군사사, 알렉산드르 스베친, 소련군, 미군, 미육군지휘참모대학, 고등군사연구원, 데이비드 글랜츠, 걸프 전쟁

75) Kipp, “Operational Art and the Curious Narrative on the Russian Contribution” p. 202.

76) 탈냉전기 미국의 작전술 변화에 관해서는 노양규, 「미국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163-207쪽을 참고할 것.

77) Charles J. Dick, *From Defeat to Victory: The Eastern Front, 1944*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6). 구체적인 비교에 관해서는 pp. 252-262을 참고할 것.

## 〈참 고 문 헌〉

- 국방군사연구소, 『걸프전쟁: 미국방부의회최종보고서』,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2
- 김재박, “제1차 세계대전 시기 미국 원정군(AEF)의 군사교리 연구: 1사단의 참전경험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노양규, “미국 작전술의 변화와 한국군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노양규, 『작전술』, 서울: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류한수·유승현, “진흙 밭의 거상’인가? ‘붉은’ 스팀롤러인가?: 러시아/소련 군대에 관한 서방 세계의 편견과 실상”, 『중소연구』 제41권 1호 (2017년 5월): 293-322, DOI: 10.21196/aprc.41.1.201705.009
- 류한수, “1945년 ‘8월의 폭풍’과 1991년 ‘사막의 폭풍’: 붉은 군대의 만주 전역과 미군의 이라크 전역의 유사성 분석”, 『역사문화연구』 제63권 (2017년 8월): 171-206, <http://dx.doi.org/10.18347/hufshis.2017.63.171>
- 리텔 하트, 바실, 주은식 옮김, 『전략론』, 서울: 책세상, 1999
- 프리드먼, 로렌스, 이경식 옮김, 『전략의 역사』 제1권, 서울: 비즈니스북스, 2014
- 버거, 피터, 국방대학원 옮김, 『소련 전격전 이론』, 서울: 국방대학원, 1986
- 섬머스, 해리, 권재상·김종민 옮김, 『미국의 걸프전 전략』, 서울: 간디서원, 2005
- 서머스, 해리, 민평식 옮김, 『미국의 월남전 전략』, 서울: 병학사, 1983

- 심경욱, “러시아의 항공우주산업과 국가안보”, 『국방개혁의 패러다임을 통한 항공우주력 건설』, 서울: 오름, 2007
- 이근욱, 『이라크 전쟁: 부시의 침공에서 오바마의 철군까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 육군대학 전략학처 작전술과, “작전술과 작전적 수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군사평론』 제432호 (2010)
- 장문중, “스베친의 소모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캐럴, 제임스, 전일휘·추미란 옮김, 『전쟁의 집: 펜타곤과 미국 패권의 비극』, 서울: 동녘, 2009
- 코코신, A. A., 한설 옮김, 『군과 정치: 러시아 군사정치·군사전략 사상사(1918~1991년)』, 서울: 육군군사연구소, 2016
- 판 크레펠트, 마틴, 주은식 옮김, 『전투력과 전투수행』, 서울: 한울, 1988
- 폰 멜렌틴, 프리드리히, 민평식 옮김, 『기갑전투』, 서울: 병학사, 1986
- 합동교범 3-0, 『합동작전』(최종 인쇄본) 2010.9판  
『합동작전』(미 합동교범 3-0 번역본, 2011.8.11.판)
- Adamsky, Dima P., *American Strategic Culture and the U.S.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Oslo: Norwegian Institute for Defence Studies, 2008
- American Battle Monuments Commission, United States Marine Corps, *American Armies and Battlefields in Europe: A History, Guide, and Reference Book*. Washington, DC.: U.S. Marine Corps, 1989
- Bellamy, Christopher, “Antecedents of the Modern Soviet Operational Manoeuvre Group (OMG)”, *RUSI Journal*, vol. 129, no. 3 (September 1984)

- Benson, Kevin C. M., “Educating the Army’s Jedi: The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and the Introduction of Operational Art into U.S. Army Doctrine 1983–1994”, Ph.D. Diss., University of Kansas, 2010
- Benson, Kevin C. M.,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Commemorative History, 1984–2009*, Fort Leavenworth, Kansa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09
- Brown, John S., “The Maturation of Operational Art: Operations Desert Shield and Desert Storm”, in Michael D. Krause and R. Cody Phillips (eds.),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2005
- Donnelly, Christopher, “Operational Manoeuvre Group: A New Challenge to NATO”, *International Defence Review*, 9 (1982)
- Doughty, Robert A., *The Evolution of U.S. Army Tactical Doctrine, 1946–1976*, Fort Leavenworth, Kansas: U.S.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79, 2001
- Dupuy, Trevor, *General Balck and von Mellenthin on Tactics: Implications for NATO Military Doctrine*, Maclean, VA.: BDM Corporation, 1980, pp. 22–38
- Dick, Charles J., *From Defeat to Victory: The Eastern Front, 1944*,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6
- Dick, Charles J., *From Victory to Stalemate: The Western Front, 1944*,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16
- Dick, Charles J., “Soviet Operational Manoeuvre Group: A Closer Look”, *International Defence Review*, 6 (1983)

- Erickson, John, *The Soviet High Command: A Military–Political History, 1917–1941*. London: Frank Cass, 2001
- Field Manual 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GPO, 1982
- Field Manual 100–5 Operations*. Washington, DC.: GPO, 1986
- Glantz, David M., *American Perspectives on Eastern Front Operations in World War II*. Fort Leavenworth, Kansas: SASO, 1987
- Glantz, David M., “August Storm: The Soviet Strategic Offensive in Manchuria, 1945”, *Leavenworth Paper*, no. 7 (February 1983)
- Glantz, David M., “August Storm: Soviet Tactical and Operational Combat in Manchuria, 1945”, *Leavenworth Paper*, no. 8 (June 1983)
- Glantz, David M., *Soviet Military Operational Art: In Pursuit of Deep Battle*. London: Frank Cass, 1991
- Glantz, David M., “Soviet Offensive Ground Doctrine Since 1945: Historical Overview”, *Air University Review*, no. 34 (March–April 1983), pp. 24–35
- Glantz, David M., “Soviet Operational Formation for Battle: A Perspective”, *Military Review* (February 1983)
- Glantz, David M., “The Red Army at War, 1941–1945: Sources and Interpretations,”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2, no. 3 (July 1998), pp. 595–617
- Glantz, David M., “The Nature of Soviet Operational Art”, *Parameter* 15, no. 1 (Spring 1985), pp. 2–12
- Glantz, David M., *The Relationship between “August Storm” and “Desert Storm”*. Unpublished article, 2013



- Glantz, David M., *The Soviet Airborne Experience*. Fort Leavenworth, Kansas: Combat Studies Institute, 1984
- Harrison, Richard W., *The Russian Way of War: Operational Art, 1904–1940*.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1
- Hutchinson, Robert W., “The Weight of History: Wehrmacht Officers, the U.S. Army Historical Division, and U.S. Military Doctrine, 1945–1956,”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78, no. 4 (October 2014), pp. 1321–48
- Kipp, Jacob W., “FMSO–JRIC and Open Source Intelligence: Speaking Prose in a World of Verse”, *Military Intelligence Professorial Bulletin* (January–February 2006)
- Kipp, Jacob W., “Mass and Maneuver and the Origins of Soviet Operational Art” in Karl Reddel (ed.), *Transformation in Russian and Soviet Military History: Proceedings of the Twelfth Military History Symposium, USAF Academy, 1986*. Washington, DC.: U.S. Air Force Office of Air Force History, 1999
- Kipp, Jacob W., “Operational Art and the Curious Narrative on the Russian Contribution: Presence and Absence over the Last 2 Decades”, in Stephen J. Blank and Richard Weitz (eds.), *The Russian Military Today and Tomorrow: Essays in Memory of Mary Fitzgerald*. Carlisle, P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10
- Krause, Michael D., and R. Cody Phillips (eds.),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nited States Army, 2005
- Lock–Pullan, Richard, *U.S. Intervention Policy and Army Innovation: From Vietnam to Iraq*. New York: Routledge 2006

- Luttwak, Edward N., “The Operational Level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5, no. 3 (Winter 1980–1981), pp. 61–79
- Matheny, Michael R., *Carrying the War to the Enemy: American Operational Art to 1945*.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12
- Mearsheimer, John, “Maneuver, Mobile Defense, and the NATO Central Front”, *International Security*, vol. 6, no. 3 (Winter 1980–81)
- Menning, Bruce W., “The Deep Strike in Russian and Soviet Military History”, *The Journal of Soviet Military Studies*, vol. 1 (April 1988)
- Menning, Bruce W., “The Operational Art’s Origin”, in Michael D. Krause and R. Cody Phillips (eds.),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2005
- Naveh, Shimon, *In Pursuit of Military Excellence: The Evolution of Operational Theory*. London, Frank Cass, 1997
- Nelson, Herold W., “The Origin of Operational Art”, in Michael D. Krause and R. Cody Phillips (eds.),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2005
- Nezorov, B., “Comments on ‘Bourgeois Falsification’ of Battle of Moscow in WW II,” *Military History Journal (Voennno-Istoricheskii zhurnal)*, no. 4 (April 1982)
- Orenstein, Herold S., (ed.), *The Evolution of Soviet Operational Art, 1927–1991: The Documentary Basis* vol. 1: *Operational Art, 1927–1964*. London, Frank Cass: 1995
- Schneider, James J., “Introduction: The Legacy of V. K. Triandafilov”, in V. K. Triandafilov, *The Nature of the Operations of Modern Armies*. London: Routledge, 1994

- Showalter, Dennis E., “A Dubious Heritage: The Military Legacy of The Russo–German War”, *Air University Review*, vol. 36 (March–April 1985)
- Smelser, Ronald, and Edward Davies Jr., *The Myth of the Eastern Front: The Nazi–Soviet War in American Popular Cul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Svechin, Aleksandr A., *Strategy*. Minneapolis: East View Publications, 1992
- Swain, Richard M., “Filling the Void: The Operational Art and the U.S. Army”, in *The Operational Art*, 1996
- Sutor, Kevin, “To Stem the Red Tide: The German Report Series and Its Effect on American Defense Doctrine, 1948–1954”, *The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57, no. 4 (October–December 1993)
- Turbiville Jr., Graham H., “Soviet Operational Logistics, 1939–1990,” in Michael D. Krause and R. Cody Phillips (eds.),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Operational Art*, 2005
- Turbiville Jr., Graham H., “Sustaining Theater Strategic Operation”, *The Journal of Soviet Military Studies*, vol. 1 (April 1988)
- Waddell, Timothy S., *Marshal N. V. Ogarkov and the Transformation in Soviet Military Affairs*. MA Thesis: University of Manitoba, 1999
- Zimonin, V., and A. Prikhodchenko, “Perestroika in Soviet Military Science as Mirrored in Western Press”, *Military History Journal(Voenno–Istoricheskii zhurnal)*, no. 3 (March 1989)

<Abstract>

## From “August Storm” to “Desert Storm”: The U.S. Army’s Research and Adoption of the Soviet Theory of Operational Art in the Cold War Era

Lyu, Han-su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influence exerted by the American military scholars on the adoption by the U.S. Army of the theory of operational art which had been developed in the Soviet Union. We could see that the Russian military theorist Alexander Svechin introduced the innovative concept of operational art in 1920s. The Soviet army was quick to adopt operational art as its official military theory, whereas the U.S. army ignored it for a long time. The latter’s denial of the operational art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re was no the massive standing army which could be a basis of operational art and the lack of the experiences of managing the massive army in USA during the peace time. Moreover, the massive conventional forces have been replaced by nuclear weapons during the Cold War. The defeat in the Vietnam War, the massive build-up of the Soviet conventional forces, and the result of the Middle East War in 1973 compelled the U.S. army to think it necessary to adopt an intermediate concept between strategy and tactic, however. Under such circumstances, some American specialists in the Soviet army such as David Glantz and Jacob Kipp began to argue that the U.S. army should not hesitate to adopt the operational-level art which was the part and parcel of the Soviet military theories. Their endeavor prompted the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to use the Soviet military literature as textbooks in the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At last, the concept of operational art was officially stipulated in the 1986 FM-100/5. Those competent U.S. staff officers who learned the operational-level art by studying the Soviet military theories proceeded to make the efficient plans for the U.S. army’s

military campaigns in the Gulf War in 1991. In a nutshell, some excellent Western specialists scrutinized the military theories of the Soviet Army in the Cold War era and contributed to the adoption by the U.S. Army of the operational art developed by the Soviet military theorists. As a result the USA won the Gulf War in 1991.

Keywords: operational art, military history, Alexander Svechin, Soviet army, U.S. army, David Glantz, the Gulf War, the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the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